

‘죄와 벌’의 기준 시민 500명에 묻는다

광주지방법원, 다음달 29일 양형 컨퍼런스

음주사고 등 사례 따른 처벌 수위 집중 토론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들만의 판결’ 아닌가”, “여론에 휩쓸려 세상의 구미에 맞춘 판결을 해야 하는가”

국민의 법 감정과 판사 양형(量刑) 기준의 간격은 얼마나 될까. 국민적 관심이 컸던 주요 사건마다 끊이지 않았던 양형 고려에 대한 해법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지방법원은 다음달 29일 ‘공감 받는 재판’을 위한 생각 나눔, 죄와 벌, 여러

분야 판사라면’을 주제로 한 양형 컨퍼런스를 연다. 국민과 판사들의 법 감정에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인식의 차이에 서 생기는지 알아보고 공감을 받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시민의 소리를 듣는 자리라는 게 법원측 설명이다.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여론을 수용하는 ‘상호 소통’의 기회로 삼아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 기계적 판결’, ‘전관예우(前官禮遇)’,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

(無錢有罪)’와 같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 법원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컨퍼런스는 전문가 토론회, 모의재판과 모의배심, 시민 토론회 등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우선, 전문가 토론회의 경우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음주 교통사고, 데이트 성폭행, 아동 강제 추행 사례에 따른 처벌 수위를 묻는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해당 죄에 상응하는 처벌 수위를 놓고 전문가들의 집중 토론이 펼쳐진다.

시민 100명이 법정에서 데이트 성폭행 사례에 관한 양형심리(모의재판)를 방청하고 판사의 입장에서 적절한 처벌(모의

배심)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주요 사건의 대해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국민 정서에 부합하기 위한 법원의 ‘소통’ 노력을 위한 언론·문화·심리학·시민단체 관계자와의 시민 토론회도 개최한다.

광주지법은 2~3부 행사 참여를 원하는 시민 100명을 다음 달 3일까지 광주지법 홈페이지에서 신청받는다.

한지영 광주지법 공보판사는 “구체적인 사례를 놓고 설문 조사, 양형 심리 등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시민과 법관이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독도는 한국 땅” 지도도 첫 공개

독도연구가 정태만씨 ‘일본영역참고도’ 스캔 파일 확보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 영토를 정한 대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비준할 때 일본 정부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해 사용한 지도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독도는 일본 땅”이란 내용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간하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 온 일본 아베 정부의 행보가 애초 역적이었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백해졌다.

24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대문구 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학술 간담회에서 독도연구가 정태만(59) 씨가 ‘일본영역참고도’ 스캔 파일을 확보해 공개했다. 일본영역참고도는 일본이 연합국과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기 한 달 전인 1951년 8월 해상보안청 수로부가 작성한 지도로, 같은 해 10월 일본 국회가 조약을 비준할 때 부속

지도로 제출됐다.

일본 우익은 이 지도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일본 측 연구자들은 지금껏 이 지도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씨가 공개한 지도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있다.

정씨는 “지금껏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이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며 영유권을 주장해 왔지만, 이 지도를 보면 당시 일본과 연합국 모두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정씨는 단국대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다가 ‘일본영역참고도’에 따르면 독도는 일본 땅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한 일본 우익인사의 홈페이지에서 이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명량’ 흥행, 축제로 잇는다

10월 9일~12일 ‘명량대첩 축제’...영화감독 등 초청

오는 10월9일부터 12일까지 진도대교 일원에서 제7회 명량대첩축제가 열린다. 영화 ‘명량’의 흥행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이순신장군의 명량대첩 승전일인 음력 9월16일에 맞춰 축제를 시작하고, 축제 기간도 4일로 하루 늘었다. 주제는 ‘불멸의 명량, 호국의 울돌목’으로 정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지난 2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개최된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이사회를 주재하고 “명량대첩의 승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도왔던 호남 민중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전라도 백성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해 도민 자긍심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영화 ‘명량’의 흥행 기록이 계속되는 시기에 축제가 열리는 만큼 영

화 ‘명량’을 축제 마케팅에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축제장에 김한민 ‘명량’ 영화 감독과 이순신 장군역을 맡은 최민식 씨를 초청해 강연, 청소년과의 대화를 갖고, 축제 현장에서 ‘명량’ 영화 상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화를 보고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관광상품을 만들고, 축제장에서 백파진, 중무사, 순절묘역 등 명량대첩 유적지를 둘러볼 셔틀버스도 운행할 방침이다. 또 축제를 국민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참여 및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축제의 백미인 ‘명량대첩 해전 재현’은 대표 프로그램으로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횡수를 1차로 줄인 대신 당시의 전투 상황을 사실적이고 박진감 있게 재현한다. /윤현석기자 chadol@

다음달 10일 ‘대체휴일제’ 첫 적용

오는 추석 연휴에 대체휴일제가 첫 적용될 예정이다. 추석연휴기간에 일요일이 있어 연휴 다음날인 10일까지 쉬는 것이다.

2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오는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다음달 10일은 지난해 대체휴일제 도입 후 실제 시행되는 첫 대체 휴일이다. 대체휴일제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대통령령 ‘관공서의 휴일에 관

한 규정’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날 첫 번째 평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올해 추석은 하루 전인 9월7일이 일요일이어서 당초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9월9일)의 다음날인 9월10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됐다. /연합뉴스



전남개발공사가 운영중인 영암 한옥호텔 영산재의 야경. 오는 9월 2일부터 7일간 중국 영화가 촬영될 예정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남 한옥의 아름다움 스크린 타고 中 상륙

영암 영산재서 다음달 2~7일 중국판 ‘아빠 어디가’ 촬영

영암에 있는 한옥호텔 영산재가 중국 영화의 촬영무대로 쓰인다. 운영을 맡고 있는 전남개발공사는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영산재를 알릴 기회로 보고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24일 “가족휴먼 코미디물인 중국 영화 ‘아빠의 휴가’ 촬영이 다음달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한옥호텔 영산재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아빠의 휴가’는 올해 초 중국에서 2000만명 이상이 관람할 정도로 흥행한 중국판 ‘아빠 어디가’의 후속작으로, 한국에서는 부산과 전남에서 전체 분량의 80%를 찍게 되고 개봉은 내년 1월말 예정이다.

영화제작 대행사인 (주)아피아스튜디오(대표 김태욱)는 이 기간 동안 영산재 전체 객실(21개)을 빌려 사용하고 숙박

료 등 전체 이용비용을 별도 지불하기로 했다.

한옥호텔 영산재는 한옥을 모티브로 한국 고유의 멋과 맛을 알리는 특색있는 숙박시설로 부상하면서 그 동안 각종 언론매체 및 교양,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된 바 있지만 중국 영화 촬영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화제작사는 이번 작품에 중국판 ‘아빠 어디가’ 멤버들과 함께 한국배우 성동일씨를 특별 출연시켜 전편의 흥행을

이어갈 계획으로, 중국 상영 시 한옥호텔 영산재 등 전남을 홍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남개발공사 전승현 사장은 “이번 중국영화 촬영 유치는 전라남도 전통 한옥 숙박시설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면서 “중국인에게 한옥호텔의 아름다움을 알려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백원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정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백원광주안과

※ 부작용: 수술 초기 야간 빛반전, 노안라식 수술 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의필 제 140611-중-59153호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필 제081110-중-10719호

Beautis
Clear skin & laser clinic

맑은피부과·성형외과

-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레이저 시술 전문클리닉
- 피부과 전문의 진료

- 레이저센터 (최신 30여종)
- 항노화치료
- 기미클리닉
- 성형외과
- 지방이식 흡입
- 모발이식 관리
- 에스테틱

맑고 깨끗한 피부제안 For your best skin

- 최신레이저 30여종 보유

- ① 리프팅레이저: 볼세라, 써미지, 해나겟 복합치료
- ② 하드롤 레이저: 스쿠스빔, 아이솔, 브이빔, 프락셀
- ③ 제모 레이저: 쥘름엑스, 다이오드, 듀오
- ④ 피부 미백: 쿼디스틴 엑셀V, 쥘름엑스 쿼비레이저
- ⑤ 주름·흉터: 프락셀 듀얼, 울트라펄스임코, 프렉토라 인트라셀, 프락셀 제너
- ⑥ 모공: 변지, 프락셀5종
- ⑦ 비만: 네오울트라, 지방흡입

【진료시간】
상무점 · 평 일 : Am 9:30 ~ Pm 7:00
· 토요일 : Am 9:30 ~ Pm 4:00
· 관리실 (아진화관) : Am 9:30 ~ Pm 8:30
→ 점 : Pm 1:00 ~ Pm 2:00
윤임점 · 평 일 : Am 9:00 ~ Pm 6:30
· 토요일 : Am 9:00 ~ Pm 4:00
※ 기타 예약이 없는 원하면 시간에 진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무점】 상무지구 미즈피어빌딩B/D 1F | Tel: 385-7575, 1177 | 에스테틱: 385-0009 www.clear-skin.co.kr / www.s-thetic.co.kr
【윤임점】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3F | Tel: 528-1415 | 무료전화: 080-707-7575 | 에스테틱: 525-7555